



스위스에서 제일 아름답기로 소문난 정원 호텔.

호수와 알프스와 꽃을 품은 정원들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 중시하는 스위스다운 풍경

세심하게 가꾸는 호텔의 정원은 그 자체로 체험거리

로컬들도 즐겨 찾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호텔 정원들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스위스답게, 스위스에 있는 호텔들은 정원에도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다. 국내 여행을 즐기는 스위스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호텔들 중, 정원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호텔들을 소개한다.

1. 바우어 오 락(Baur au Lac)***** | 취리히(Zürich)

취리히 시내 중심에 자리해 있으면서도 널찍한 정원과 호수의 풍경을 갖추고 있는 럭셔리 호텔은 전문 플로리스트가 1000 주의 꽃을 관리하고 있다.

2. 알베르고 로소네(Albergo Losone) | 로소네(Losone)

이 호텔의 프라이빗 골프 코스는 16,000m² 라는 방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객실에서 바로 이어지는 골프 코스는 아름다운 정원 그 자체다. 객실에서 바라보는 정원 뷰도 무척 아름답다.

3. 보리바주 팔라스(Beau-Rivage Palace)***** | 로잔(Lausanne)

레만호(Léman) 호반에 자리한 로잔의 보리바주 팔라스에는 4 헥타르에 달하는 프라이빗한 정원이 펼쳐진다. 풀장에 있는 선배드에 누워 시원한 음료를 즐기기에 좋다.

4. 베르그호텔 샤희알프(Berghotel Schatzalp)*** | 다보스(Davos)

2008년 스위스 최고의 역사적인 호텔로 선정된 곳으로, 1900년에 럭셔리한 요양원으로 문을 연 곳이다. 그 당시 건축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으며, 품위있던 요양원답게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 수 있다.

5. 그랜드호텔 기스바흐(Grandhotel Giessbach)**** | 브리엔츠(Brienz)

기스바흐 폭포, 알프스 산, 호수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호텔로, 개인 보트 선착장과 호텔까지 오르는 귀여운 퓨니쿨러가 감상적인 여정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자연물로 만들어진 풀장과 주변의 화려한 꽃들로 꾸며진 정원이 아름답다.

6. 호텔 세자 살리스(Hotel Chesa Salis)*** | 베버(Bever)

1982년 이래 세자 살리스는 개인 저택의 매력을 품은 호텔로 유명했다. 1미터나 되는 두꺼운 벽은 따뜻한 기온과 귀족적인 너그러움을 발산한다. 18개의 안락한 객실은 옛 시절의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도록 장식되어 있다. 편안한 라운지에서 투숙객들은 맛깔난 향토식을 즐길 수 있다. 초록의 정원도 무척 로맨틱하다.

7. 클로스터호텔 생 페터진젤(Klosterhotel St. Petersinsel)*** | 생 페터진젤(St. Petersinsel)

스위스 서부에 있는 빌 호수(Bielensee)에 있는 섬, 생 페터진젤에 위치한 호텔로 과거에 수녀원이었던 곳이다. 이 곳에 하루 묵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체험이 되어 주는데, 13개의 소박한 객실에서 고요하면서도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변으로 넓게 펼쳐진 정원은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준다.



8. 란드가스트호프 뤼디후스(Landsgasthof Ruedihus)*** | 칸데르슈텍(Kandersteg)

이 산골 마을 살레는 칸데르슈텍 마을 중심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자매 호텔 돌덴호른(Doldenhorn)이 맞은편에 자리해 있는데, 실내 풀장과 스파 센터는 뤼디후스 투숙객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겐미 고개의 풍경이 펼쳐지는 웅장한 가운데 살레 풍으로 꾸며진 낭만적인 정원이 아름답다.

9. 로맨틱 호텔 배렌 뤼렌로트(Romantik Hotel Bären Dürrenroth)***, | 뤼렌로트(Dürrenroth)

베른(Bern) 근교의 치즈 농가 마을, 에멘탈(Emmental) 지역에 자리한 호텔로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역사적인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스위스에서 중요한 호텔 중 하나다. 아름다운 조형으로 꾸며진 정원은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다.

10. 쉘로스 취니겐(Schloss Hünigen)**** | 코놀핑엔(Konolfingen)

베른에서 멀지 않은 마을, 코놀핑엔에 있는 4성급 고성 호텔로, 3500 그루의 장미와 파빌리옹이 놓인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다.

11. 쉘로스 바르테그(Schloss Wartegg)***s | 로르샤허베르그(Rorschacherberg)

스위스 북동부의 보덴제(Bodensee) 호숫가의 로르샤허베르그 마을에 있는 고성 호텔로, 성의 정원은 스위스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유산이다. 이 정원은 1860년 파르마(Parma) 공작부인이 만든 것이다.

12. 발트하우스 플림스 알파인 그랜드 호텔 & 스파(Waldhaus Flims Alpine Grand Hotel & Spa)*****s | 플림스(Flims)

“유스(Youth, 2015)”라는 영화의 로케이션으로 사용된 호텔로, 그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은 영화 곳곳에서 등장한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풍경을 선사하는 이 호텔의 정원은 스위스에서 가장 커다란 호텔 정원 중 하나로, 플림스-락스(Flims-Laax) 지역의 알프스 풍경을 담백 안겨준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